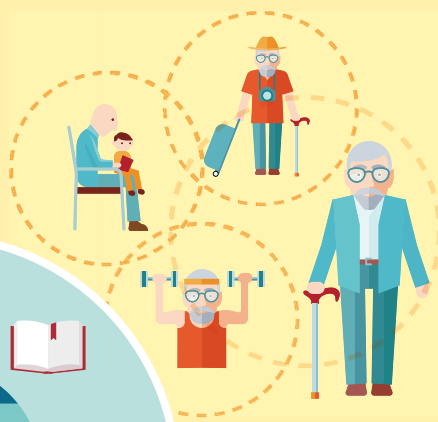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

• 원격부양 •



• 황혼육아 •



• 더블케어 •



• 동상이몽 •



• 부모은행 •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보고서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

심현정 · 정나라

Contents

발행일	2018.5.8
발행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타워 1, 13층 (Tel. 02-3774-6979) 홈페이지 : http://retirement.miraeasset.com/
발행인	김경록
저자	심현정 · 정나라
편집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작 · 디자인	디자인비스
인쇄	현문자현

본 자료의 저작권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용 · 발췌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5
들어가며	10
I. 부모은행	12
1 30여년을 자식을 품고 사는 5060 캥거루 부모	12
2 성인자녀에게 나가는 고정지출, 월 73만원	16
3 부모은행의 애정담보대출	19
4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계획이지만 보답은 기대하지 않아	22
II. 원격부양	28
1 모시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28
2 시설간병이 대세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	31
III. 황혼육아	38
1 손주 둔 5060 절반은 황혼육아 중이거나 경험 있어	39
2 체력적 부담은 크지만 대가는 적어	40
3 황혼육아는 자녀사랑의 연장선	43
IV. 더블케어	47
1 더블 케어 비용, 소득의 20%에 달해	47
2 자칫하면 '트리플 케어'로 이어져	51
3 '케어 푸어(Care Poor)', 더블 케어의 잠재적 위험	53
V. 동상이몽	56
1 부양과 가사의 주체, 5060 여성	56
2 가족 부양에 대한 남녀의 시선차	59
3 애정의 크기는 달라도 결국엔 '당신' 밖에 없는 5060 부부	62
맺으며	64
참고 문헌	66



〈 요약 〉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17년 12월 5060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가족 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분석했다. 그 결과 5060 세대의 가족 관계를 ‘부모은행’ ‘원격부양’, ‘황혼육아’, ‘더블케어’, ‘동상이몽’이라는 5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부모은행’과 ‘원격부양’은 기존의 자녀 부양과 노부모 봉양이 확대,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황혼육아’는 맞벌이가 필수인 사회에서 5060 조부모에게 새롭게 추가된 부양 과업이다. ‘더블케어’는 경제 저성장과 수명연장으로 인해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 부양하는 5060 세대의 현실을 말한다. ‘동상이몽’은 가족 부양을 함께 감당할 부부 사이의 역할과 인식 차이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소다.

I. 부모은행

부모은행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5060 세대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결혼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 5060 10가구 중 7가구(73.3%)는 현재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열에 아홉(87.5%)은 현재 성인자녀에게 생활비와 목돈을 지원한 적이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일체의 지원을 끊고 독립시키는 부모를 찾기 어려운 시대다.
- 5060 네 집 중 세 집(74.8%)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었거나 현재 지원하고 있다. 성인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에는 용돈이나 보험료,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성인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5060 가계는 매월 평균 73만 원을 주고 있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5060 가구 75.7%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비롯한 목돈을 지원했다. 평균 지원액은 5847만원이다. 이는 이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3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미혼 성인자녀 다섯 중 세 명 이상(65.6%)이 부모에게 학자금 등의 목돈을 지원받았다. 금액은 평균 2,535만 원이다. 기혼 자녀

다섯 중 두 명(남 39.2%, 여 40.0%)은 결혼자금 등 목돈을 지원 받았다. 금액은 평균 6,372만 원이다.

- 5060 가구 중 42.9%는 앞으로도 성인자녀를 지원할 계획이다. 5060 가구가 자녀에게 앞으로 지원하려는 목돈은 1억 5162만 원, 생활비는 월 75만원이다. 이들은 기존에 5,800만 원의 목돈과 월 77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 5060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원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를 지원해 준 5060 중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을 나중에 보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7.5%, ‘나는 자녀에게 나의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간병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0.4%에 그쳤다.

II. 원격부양

원격부양은 5060 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방법이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거나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셔 간병하는 현실을 표현한다.

- 5060가구 중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는 12.3%에 불과하다. 남편의 부모님을 모시는 비율이 8.3%,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는 비율이 3.6%, 양가 모두 모시는 경우가 0.2%였다.
- 현재 본인의 부모를 모시지 않는 가구의 69.8%는 향후 노부모가 따로 지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한다. ‘실버타운 및 요양시설’에 모시겠다(31.2%)는 의견이 가장 다수며, 근거리에 살게 하겠다는 응답이 22.5%로 그 다음이었다.
- 5060 5가구 중 2가구 이상(44.6%)이 노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주고 있는 생활비는 월 평균 36만원이다.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가구가 27.0%, 비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드리는 가구는 28.4%다.

- 5060 가구 72.7%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6개월 이상 장기간 간병한 경험이었다. 노부모 간병에 소요된 총 비용은 평균 2,035만원이다. 간병비를 형제자매가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용은 평균 734만 원이다.
- 노부모를 간병할 때, 자녀들의 집에서 간병하는 ‘재택간병’이 23.5%,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간병하는 ‘시설간병’이 58.5%를 차지한다. 노부모 간병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설간병을 하는 경우 재택간병보다 간병 기간은 짧지만, 월평균 간병비용은 더 많이 든다.

III. 황혼육아

황혼육아는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 5060 세대가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손주가 있는 5060세대 절반(51.1%)이 황혼육아를 경험한 적이 있다. 과거에 손주를 양육해 주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경우가 24.0%, 현재 손주를 양육 중인 경우가 27.1%다.
- 황혼육아의 형태를 보면, 본인이나 손자녀가 서로의 집으로 오가는 ‘출퇴근 육아’가 대략 절반 정도다.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집에 방문해 손주를 돌보는 비율이 25.1%, 손주가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비율이 24.0%다. 자녀 부부 없이 손주만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답한 세대는 22.5%이며, 자녀 부부 및 손주와 함께 거주하며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9.5%다.
- 5060 세대는 황혼육아의 가장 힘든 점이 체력적 한계(55.6%, 중복응답)라고 말한다. 시간 사용 제약(49.8%)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태도(21.5%)도 애로사항이다. 하지만 황혼육아는 힘겨움에 비해 보상이 적다. 양육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집은 34.9% 뿐이며, 평균 수령액은 69.6만원에 그쳤다.
- 5060 세대의 황혼육아는 자녀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녀(부부)가 마음 놓

고 직장생활 또는 학업을 하게 도와주려고(48.0%) 황혼육아를 하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자녀가 아이를 전담해 양육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다(16.7%)는 이유였다.

IV. 더블케어

5060 세대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간병을 하는 등 이중으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

- 5060 세대 중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53.2%,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62.4%다. 아래로는 성인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른바 ‘더블케어(Double Care)’에 놓인 가구는 34.5%로 세 집 중 한 집 꼴이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더블 케어 가구는 성인자녀에게 월 78만원의 생활비를 주며, 노부모에게는 월 40만원을 준다. 양 쪽에 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118만원이다. 이는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노부모 간병이 더해지면, 간병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간병비 지출을 매월 지출로 환산해 살펴보면,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노부모 간병비까지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은 월 170만원에 이른다.
- 손주가 있는 더블 케어 가구 다섯 집 중 두 집(41.9%)은 더블 케어를 하는 와중에 추가로 손주도 돌봐주고 있는 ‘트리플 케어’ 가구다. 트리플 케어 가구가 손주를 돌봐준 기간은 평균 26.5개월이며, 이들 중 43.6%가 양육수고비를 받지 않는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더블 케어 가구의 22%는 ‘케어 푸어(Care Poor)’다. 이들은 성인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가구 소득의 36.3%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케어 푸어 가구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가족을 부양하는 것

같다고 여기며, 이들 5가구 중 3가구는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V. 동상이몽

5060 남성과 여성은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 부양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 서로에 대한 시선에 이르기까지 좁힐 수 없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동상이몽은 그런 5060 남녀의 차이를 지칭한다.

- 5060 남과 여, 이들은 가족관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부터 실제로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부양의 역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시선까지 분명한 간극이 드러난다.
- 5060 여성은 가족 내에서 노부모 부양이나 손주 양육과 같은 ‘돌봄노동’의 주체다.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하는 경우 열에 일곱(69.3%)은 5060 여성이 주된 간병자가 된다. 손주를 돌볼 때도 85.1%는 여성이 황혼육아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한다.
- 5060세대 남녀는 가족 부양과 관련한 인식도 달랐다. 여성들은 그 간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녀가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대해 남성(46.4%)보다 더 큰 기대(57.0%)를 가지고 있다.
-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노부모 부양의 의지가 강하다. 남성의 75.7%는 여력이 된다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으나, 이에 동의한 여성은 60.1%였다.
- 5060 남성은 배우자에게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여성은 자녀가 먼저다. 5060 남성은 가족 중 가장 애정을 느끼는 관계로 ‘배우자’(59%)를 뽑았지만, 여성은 ‘자녀’(54.4%)를 1순위로 꼽았다. 배우자라고 답한 여성은 29.9%다. 행복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다. 비록 애정과 행복에 대한 순위는 달랐지만 5060 남녀들은 향후 자신들의 노후를 함께 해 나갈 배우자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의지한다고 답했다.

들어가며

5060 세대의 인생은 우리 사회의 현대사와 닮아있다. 5060 세대가 젊은 나이에 사회에 진출해 삶의 현장에서 청춘을 꽃피우던 시기에 우리 사회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5060 세대가 사회 일선에서 퇴장을 준비하는 지금, 공교롭게 우리 사회도 고성장의 전성기를 마무리하고 저성장·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5060 세대가 살아갈 노후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라는 데 있다. 고령화로 인한 변화는 넓고도 깊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그럴수록 노후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

독립해서 제 길을 가야 하는 자녀들이 부모 품에 오래 남아있다. 취업이 쉽지 않고, 결혼도 늦어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부모 부양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일상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오랜 기간 노부모 간병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5060 세대는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 부양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가족 부양의 부담은 가족 내 경제적 지원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5060 세대의 가족을 향한 경제적 지원은 다층적 관계로 얽혀 있다. 아래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위로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고, 심지어 자녀의 자녀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경제적 지원의 형태 역시 매월 경상지출이 있는가 하면, 비경상적인 목돈 지원도 있다. 자녀나 노부모 어느 한쪽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지원하는 ‘더블 케어’도 있다. 심지어 손자녀까지 돌봐주는 ‘트리플 케어’도 드물지 않다. 이같은 가족 내 경제적 지원은 5060 세대의 노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를 실시하여 5060 세대 가족 내 경제적 지원을 살피고 5060 세대가 안고 있는 가족 부양 부담을 조명했다.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살아 있으며, 슬하에 만 19세 이상 성인자녀를 둔 만 50~69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가족 부양 부담에는 재정적, 육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부양 행태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양 중 느끼는 감정과 애로사항, 행동 이면의 동기와 부양 의식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나아가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5060 세대가 가족을 부양하며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를 통해 5060 세대의 가족 부양 부담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본 보고서는 5060 세대의 가족 부양 현실을 ‘부모은행’, ‘원격부양’, ‘황혼육아’, ‘더블케어’, ‘동상이몽’ 5가지 키워드로 집약했다. ‘부모은행’은 자녀부양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된 현실을 표현한다. ‘원격부양’은 5060 세대가 현실에 맞춰 변형한 노부모 부양 형태다. ‘황혼육아’는 맞벌이가 필수인 사회에서 5060 조부모에게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부양 과업을 말한다. ‘더블케어’는 5060 세대가 경제 저성장과 수명연장으로 인해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무거운 현실을 그려낸다. 마지막으로 ‘동상이몽’은 가족 부양을 함께 감당하는 부부 사이의 부양에서의 역할과 인식차이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소다.

본 보고서는 5060 세대의 가족부양 실태 뿐 아니라 이들이 부양을 하며 겪는 어려움, 가족 내 부양책임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부양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이유 등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과 동기까지 함께 살피고 있다. 나아가 가족 부양이 5060 세대 삶에 부담 요소가 되어 노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5060 세대가 가족 부양과 자신들의 노후 사이에 있는 갈등을 인식하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해 갈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

● 조사 내용

- 성인자녀 경제적 지원 실태 및 인식
- 노부모 부양(주거 관련, 경제적 지원, 간병 경험) 실태 및 인식
- 손주 양육 실태 및 인식
- 가족 관계 및 가족 부양에 관한 인식

● 조사 개요

	설문조사	일대일 대면조사(In-Depth Interview)
조사 대상	국내 거주 만 50~69세 남녀 2001명 (조사일 현재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명 이상이 살아 있고, 만 19세 이상 성인자녀가 있는 자)	만 50~69세 남녀 10명 (설문조사 응답자 중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님 간병, 손주 양육 중 2가지 이상 부양 경험이 있는 자)
조사 기간	2017년 12월 4~22일	2017년 12월 7~18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및 전화 조사	전문 인터뷰어와 약90분간 1:1 인터뷰

KEY WORD

1

부모은행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었다.’

부모의 사업이 망한 뒤 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학업도, 취업도 힘들었다. 낙하산 친구에게 정규직 자리도 빼앗겼다. 그런 딸을 위한 부모의 선택은 딸의 출생을 속여서라도 부잣집에 들어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게 해주는 것이었다. 2018년 3월 중영한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의 한 장면이다. 딸을 바꿔치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다루었음에도 이 드라마가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주고 싶어 갖은 희생을 감수하는 우리네 부모의 마음을 그만큼 잘 그려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의 취업과 자립이 어려운 시대, 5060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보며 두 손 놓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성인이 된지 한참인 자녀이지만 같이 살며 뒷바라지를 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다.



1 30여년을 자식을 품고 사는 5060 켑거루 부모

5060 가구 열에 일곱은 성인자녀와 함께 살며, 그중 절반에게 경제적 지원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성인자녀가 있는 만 50~69세 남녀 2001명을 조사한 결과, 5060 가구 열에 일곱(73.3%)은 현재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있는 ‘켑거루족’ 자녀는 부모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자녀의 53%는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받고 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성인자녀의

16.6%만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수치다. 성인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060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자녀의 절반 이상(53.3%)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주거비 또한 만만치 않아 2030 젊은 세대가 선불리 독립을 외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녀들을 고생길로 밀어 넣을 수는 없는 노릇. 할 수만 있다면 데리고 살면서 자녀들이 자산을 모아 독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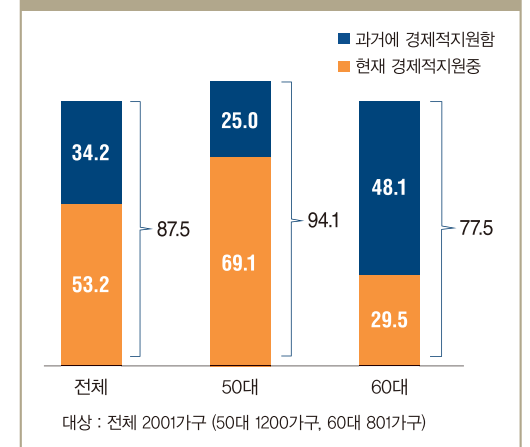
서구 사회에서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자녀가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성인이 되면 독립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지만,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임금성장을 둔화로 인한 일련의 가계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의 거주형태를 바꾸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미국 18~34세 성인의 32.1%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EU 회원국 28개국 18~34세의 절반(48.1%) 가량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이 결과는 성인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에게 의존해 지내는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말해준다.

5060 10가구 중 9가구는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

5060 가구 열에 아홉(87.5%)은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지금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했던 경우가 34.2%이며 현재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53.2%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라 함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매월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거나 필요한 목돈(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일체의 지원을 끊고 독립시키는 부모를 찾기 힘든 요즘이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아무래도 60대에 비해 50대가 현재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50대의 자녀 평균연령이 더 낮고(50대 가구 자녀 평균연령 24.8세, 60대 가구 자녀 평균연령 33.4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많기 때문이다. 50대의 69.1%가 현재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

〈도표 1-1〉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비율 (%)



고 있다. 상대적으로 60대가 현재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비율(29.5%)은 낮다. 50대의 경우 자녀가 20대 초·중반으로 대학 학업 중이거나 취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자녀들이 차차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므로 60대 부모는 50대보다는 성인자녀 부양 부담이 조금은 덜하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원 항목별로 나눠 살펴봤다. 5060 가구의 74.8%가 성인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이때 지원한 생활비는 월평균 73만원이다. 5060 가구 중 목돈을 지원한 가구 비율은 75.7%이며, 이들 가구들은 평균 5847만원을 썼다. 목돈 중에는 학자금을 지원해 준 비율이 가장 높아 10가구 중 7가구(67.1%)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었고, 지원한 학자금의 평균 금액은 3485만원이다. 목돈 항목 중 평균 지원액이 가장 큰 항목은 주택자금으로, 평균 7379만원이었다.

〈도표 1-2〉 가구별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만원)

		가구 기준	
		지원한 비율(%)	평균지원액(만원)
월 생활비 지원		74.8	73
목돈 지원		75.7	5,847
	학자금	67.1	3,485
	결혼자금	17.8	3,529
	주택자금	17.6	7,379
	기타 목돈	12.0	2,060

대상 : 전체 2001 가구 ※ 평균지원액은 지원한 가구만의 평균임

성인자녀 한 명당 월 생활비 45만원, 목돈 3833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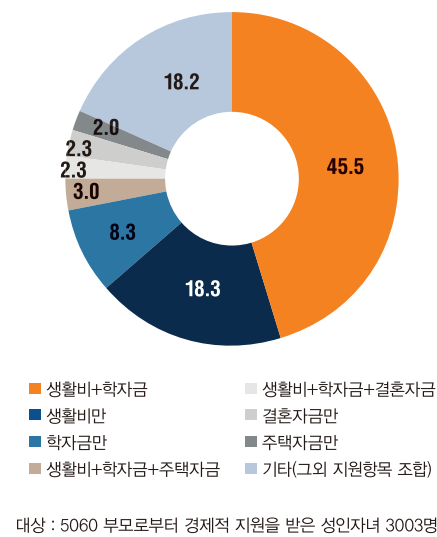
5060 가구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자녀 개별로 나눠서 살펴봤다. 5060세대 2001 가구에 속한 성인자녀 3663명 중 3003명(82%)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성인자녀들로 한정해 보니, 1인 당 평균 1.6 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2가지 지원을 받은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다. 생활비+학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45.5%로 절반에 가깝다.

성인자녀 세 명 중 두 명(65.8%)은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는 월 평균 45만원이다. 또한 성인자녀의 65.4%가 부모에게 목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1인 당 지원 받은 금액은 평균 3833만원 가량이었다.

앞선 결과를 토대로 보면 5060 부모의 절반 가량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학업을 마칠 수 있게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 생활비는 월 45만원, 학자금은 총 2287만원이 들어간다.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간을 4년으로 어렵더라도 자녀 한 명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생활비와 학자금만으로 4447만원을 지원해주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표 1-3〉 성인자녀가 5060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 유형 (%)



수명이 12~18년인 캥거루는 6~12개월 동안 새끼를 육아낭에 넣고 키운다고 한다. 캥거루는 길게 잡아야 수명의 1/10에 해당하는 기간을 새끼를 위해 희생한다. 오늘날의 5060 캥거루 부모는 어떨까? 2017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32.9세, 여자는 30.2세다.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는 성인 자녀를 30여년 가량 품고 지낸다면 인생의 1/3을 자녀에게 할애하는 것이다. 어미 캥거루가 새끼에게 육아낭 속의 젖을 먹이듯 생활비와 독립자금을 대주는 채로 말이다.

〈도표 1-4〉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 (% , 만원)

		성인자녀 1인기준	
		지원받은 비율(%)	평균지원액(만원)
월 생활비 지원		65.8	45
목돈 지원		65.4	3,833
	학자금	57.8	2,287
	결혼자금	12.4	2,926
	주택자금	12.6	6,010
	기타 목돈	8.9	1,586

대상 : 5060 가구에 속한 성인자녀 3663명 ※ 평균지원액은 지원을 받은 성인자녀만의 평균임

●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중인 5060 가구의 삶



본 조사 결과, 현재 성인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5060 가구의 78%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다. 노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지내는 3세대 가구는 8.8%이며, 부부만 사는 경우는 8.1%로 세 번째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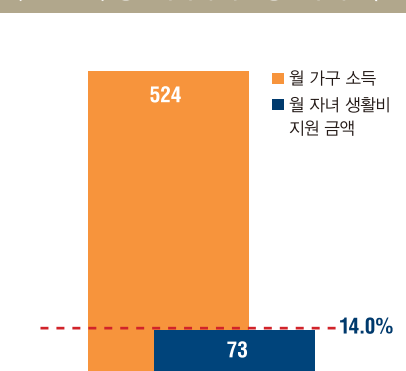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가구의 남성 평균 연령은 56세, 여성은 55세다. 2/3는 현재 경제활동 중이며,

1/3(33.5%)은 은퇴하였거나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가구 당 성인자녀는 1.8명인데, 이 중 1.5명(83.3%)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9세다. 20대 초반인 자녀들이 많지만, 30세 이상인 자녀도 17.2%나 된다. 이 가구에 속한 성인자녀 대부분이 미혼(97.4%)이며, 열에 여섯(57.8%)은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 성인자녀에게 나가는 고정지출, 월 73만원

5060 4가구 중 3가구(74.8%)는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었거나 현재 지원하고 있다. 성인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에는 용돈이나 보험료,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가구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준 금액은 월 73만원 정도다. 이는 가계 월소득(524만원)의 14%에 해당한다.

〈도표 1-5〉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 (만원)



대상 :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1497가구

성인자녀 생활비 지원은 고정지출 성격

성인자녀에 주는 생활비가 5060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떠한 지출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지출액의 절대적인 규모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 지출 수준을 조절하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나가는 생활비가 어떤 지출 성격을 띠는 지 확인해 봤다.

가계의 지출 상황을 점검할 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한다. 고정지출은 공과금이나 집세와 같이 정기적으로 반드시 지출이 필요하며 매달 금액 변화가 적다. 가계에 따라 최소한의 식비, 용돈, 현금이나 기부금 등도 고정지출로 잡는다. 반면, 변동지출은 지출 여부나 규모를 가계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지출이다.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이 지출된다는 면에서 성인자녀 생활비는 고정지출의 특성을 갖는다. 5060 부모들이 성인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를 살펴보니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정도가 약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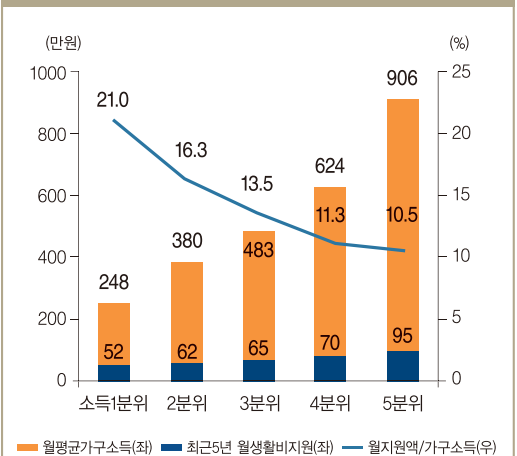
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48만원인데, 이들은 매월 52만원을 성인자녀에게 지원해 소득의 21%를 할애한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계는 월 906만원을 벌며 10.5%인 95만원 가량을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로 준다. 소득 5분위 가계의 월 소득은 1분위 가계의 4배 수준이지만, 성인자녀에 지원한 생활비는 2배가 채 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소득이 적은 집이라고 해서 성인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소득 수준에 맞춰 적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인자녀가 생활하는데 고정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가계라도 무리가 될지언정 일정 규모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5060 가계가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이는 가계가 상황에 따라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고정지출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대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 비율 높아

5060세대의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자녀 개별 특성으로 돋보기를 옮겨봤다. 성인자녀의 특성별로 최근 5년 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과 금액을 비교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40대에 비해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미혼이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자녀 세 명 중 두 명(각각 61.3%, 63.7%) 가가

〈도표 1-6〉 가구소득 분위별 최근 5년 성인자녀 생활비 지원액(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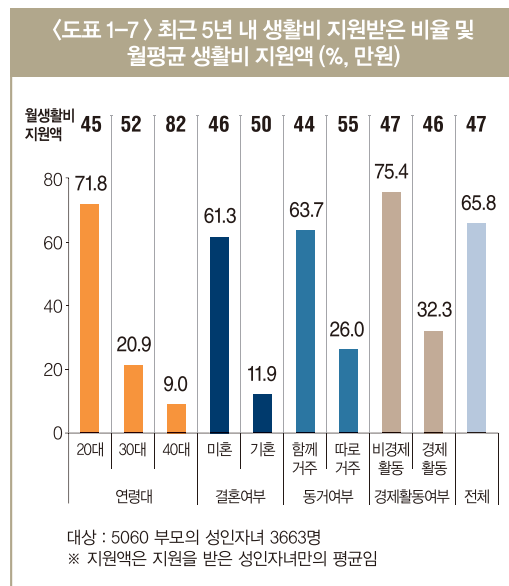


대상 : 최근 5년 내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1245가구

※ 가구소득 분위는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세위 5그룹으로 구분한 것으로, 1분위에 가구소득 하위 20%가 포함되며, 5분위에 가구소득 상위 20%가 포함됨.

이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5.4%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수입이 있거나 결혼한 자녀처럼 부모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만한 성인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우가 눈에 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자녀 셋 중 하나(32.3%)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며, 결혼을 하고도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11.9%다. 자녀들이 독립할 조건이 되더라도 부모가 무조건 생활비 지원을 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유경 외(2015)를 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0대 이상 부모가 부양하는 성인자녀(만25세 이상) 중 취업자 비율은 58.9%로 비취업자(28%) 및 학생(13.1%)보다 많았다. 성인 자녀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생활비를 주는 데는 자녀가 보다 여유있는 삶을 살고, 부모의 지원을 디딤돌 삼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고 싶은 부모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최근 5년 내 성인자녀 한 명이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는 평균 월 47만원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각할수록 생활비를 받은 비율은 떨어지지만, 지원받은 금액은 증가했다. 40대인 자녀 중 9%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 평균금액이 82만원이다. 기혼 자녀 역시 미혼 자녀들보다 생활비를 지원받은 비율은 낮지만 미혼 자녀에 비해 10% 더 많은 생활비를 받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함께 사는 경우보다 11만원 가량 생활비를 더 받았다.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고도, 따로 거주하면서도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성인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통상 시간이 흐르면서 5060 가계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녀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독립 의지가 약해 부모들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면, 부모세대가 꿈꾸던 평안한 노후가 어그러지는 것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3 부모은행의 애정담보대출

5060 4가구 중 3가구는 자녀에게 5847만원의 목돈 지원

80년대에 자식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부담은 대학 등록금이었다. 농촌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소를 팔아 등록금을 낸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이라 부르기도 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5060 세대가 지고 있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담은 과거 그들의 부모님 세대의 부담을 훌쩍 넘어섰다. 5060세대는 학자금에 기본이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목돈까지 대주고 있는 실정이다.

5060 가구 중 75.7%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비롯한 목돈을 지원했고, 평균 지원액은 5847만원이다. 이는 이들 가계 금융자산의 32.8%에 해당한다. 50대의 경우 네 가구 중 세 가구(74.4%)가 학자금을 지원했지만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적었다. 50대 가구의 자녀 평균연령이 25세로 아직 결혼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60대 가구가 결혼자금, 주택자금, 기타 목돈을 지원한 비율은 50대의 2~3배 수준이다. 대개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이 학자금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60대의 목돈 지원 규모가 50대에 비해 월등히 크다. 60대 가구의 평균 목돈 지원액은 9058만원이며, 50대는 3868만원이다.

미혼 자녀에게는 학자금, 기혼 자녀에게는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

결혼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목돈 지원은 학자금이 대부분이다. 이후 자녀의 결혼을 계기

